

마이산 명인명품관 개관 앞뒤

25일 개관 맞춰 '마이산 소원 빛 축제' 12월 31일까지 진행

진안군은 진안마이산 명인명품관 개관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개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2단계 사업으로 2016~2020년까지 추진 중인 마이산 자연치유신비체험사업 중 첫 번째 결과물인 마이산 명인명품관은 전통공예 명인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결합하여 공예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 전시, 홍보함으로써 마이산의 신비한 역사와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간이다. 군은 지난 10월 전라북도 관광명품 사업협동조합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운영과 개관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명인명품관 개관에 맞춰 제1회 마이산 소원 빛 축제를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마이산에서 소원을 빌면, 이뤄져요!~'라는 주제로 추진하는 이번 축제는 5개 주요 소원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조선왕조 창업설화와 관련해 마이산에서 왕의 기운을 받고 사회에서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는 '금척무 퍼포먼스'와 두 번째, 마이산이 호남의 지붕이라는 점과 세계 유일의 부부봉에서 사랑을 만들기 위해 시련과 어려움을 지우산으로 극복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지우산 체험' 등이다.

세 번째, 한지전통문화 체험인 '한지고무신, 타임캡슐 한지액자 만들기' 네 번째, 명인명품관으로 진입되는 동선과 주변 동선을 활용한 경관조형 거리를 체험하는 '마이산 별빛거리' 다섯 번째, 한지등갓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 소원 등 거리를 조성하는 '소원 등 달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도 관광명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인 이명기 관장은 "마이산 소원 빛 축제를 계기로 마이산의 역사와 문화, 명인명품관의 전통공예문화 등을 널리 홍보하여 마이산의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업기능인 대회 장수군, 우수상



장수군은 최근 전국 산림관계관, 임업기능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6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주관으로 강원도 횡성군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임도에서 트랙터, 집재기, 타워어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가산집재 기술을 겨루기 위해 지방산림청, 지자체, 한국산림과학고 등 총 13개 팀이 출전했다. 장수군은 올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임업기계페스티벌인력 12명을 운영하면서 숲가꾸기 부산물 수집 750톤, 생활권 피해목 1,730본 제거 등의

실적을 올리면서 가산집재 기술력 향상에 노력해 왔던 것이 이번 경진대회 성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수군은 2014년부터 임업기능인 경진대회에 도 대표로 매년 출전하면서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연속 수상할 정도로 임업기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안천면, 취약계층 20명 지원 결정

지역사회보장협의 정기회 개최... 긴급구호사업비 250만원 5세대에 지원키로

진안군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겨울철을 맞아 추위와 싸워야 하는 그늘진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관심을 끌고 있다. 안천면은 지난 10일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목적으로 협의체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 복지허브화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 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 지원하고 있다.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전문가와 마을이장,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허브화 제도 설명과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협력 배분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20명을 발굴하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사업'에 지원키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긴급구호사업비 250만원은 연말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5세대에 각 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지역 매 아리

무주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포럼

무주군 마을만들기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이 13일 설천면 호룡마을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마을을 잇는 사람들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여개 마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사례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내창마을 송덕현 위원장이 '주민들의 소득증대 노력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지역농업연구원 조경호 원장이 '저렴하는 마을을 위한 무주군 마을만들기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후에는 마을 리더들의 토론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마을 리더들은 "마을로 가는 축제 등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마을발전을 도모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가고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리더들의 역량, 주민들의 동참이 중요한 만큼 이를 채워가기 위해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함께 나눠요

무주군, 품평회 출품작들 복지시설 기증

무주군은 제3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품평회에 출품했던 농·특산물을 평화요양원과 하은의 집, 햇살이 가득한 집 등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 물품은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품평회 출품작 20여점 중 사과와 포도, 호박, 감, 더덕, 도라지, 쌀 등 133점으로, 품평회 후 농가에 반납한 것을 제외하고 군에서 구입하거나 출품 농가들이 직접 기부한 것들이다.

농업인들은 "한 해 결실을 내보내 좋은 평가도 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힘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열심히 밭 흘려 거둔 친환경 농산물이 그분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도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따뜻한 마음과 함께 받게 돼 기쁘다"며 "정성껏 농가에 반납한 것을 제외하고 군에서 구입하거나 출품 농가들이 직접 기부한 것들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국가고시 합격자 격려금 지급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은 13일 2017년도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최종합격생의 부모 2명을 초청하여 격려금 수여식을 가졌다. 격려금 수여 대상자는 제50회 사법고시 최종합격자 백정열씨(父 백영길, 장수 노곡)와 2017년도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장중석씨(父 장명현, 번안 노곡)로, 각각 격려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은 13일 사법고시·행정고시 최종 합격생 백정열·장중석씨 부모 2명을 초청하여 격려금 수여식을 가졌다.



진안군,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진안군은 영농철 경작 후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비닐 수거에 환경공단과 함께 동결기 도래 전 집중수거에 나선다. 군은 적기 수거를 위해 우선 마을부녀회·노인회·자율방범대 등 지역 자생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영농폐비닐을 다량 배출하는 마을의 경우 환경공단에서 현지 직접 수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거품목은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으로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수거해 마을별 집합장에 보관해 두면 읍면에서 수거하여 등급 및 물량기준에 따라 차후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거장려금 지급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폐비닐은 kg당 A등급 140원, B등급 120원, C등급 100원 농약용기는 200원/kg을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보전팀(☎063-430-2336)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행렬

여성단체협의회 100만원 · 진안표고영농조합 200만원 전달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행렬이 이어져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13일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홍삼축제 때 식당 부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100만원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수익금은 진안의 별미인 홍삼 튀김과 홍삼김밥 등 음식을 판매한

것이기도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또한 진안표고영농조합법인 배영옥 대표는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은 미래 꿈나무를 잘 육성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200만원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